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심 의원

## “무단투기 근절위해 예산과 정책 반영을”

상습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신고 포상금지급 등 대안밝혀

강북구의회 이영심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2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 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단투기 근절 대책을 좀더 철저하게 세우고 예산과 정책을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구인 삼양동, 송천동 등 무단투기가 참으로 심각해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되면 무단투기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한 뒤 “의회에서도 무단투기 근절대책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매달 몇 군데씩 상습투기지역을 돌아다니며 순찰하고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심 의원

이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먼저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동별로 몇 개씩 선정해 치우고, 원이나 정사각형 모양의 작은 화단을 만들어 팬지나 작은 꽃을 심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분보다는 작은 크기의 꽃밭이라도 만들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그 주변 경계에 그물망으로 경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이다.

다는 작은 크기의 꽃밭이라도 만들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그 주변 경계에 그물망으로 경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무단투기 적발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파라치에게 고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직, 일용직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면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기한 것이다. 무단투기 근절에서 청소행정과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급성이 있으며 또한 과태료가 세수가 되어 인건비는 나오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영심 의원은 “각동에 배정된 예산이 무단투기 개선사업비가 동별 연 30만원에 불과해 동사무소, 청소행과, 푸른도시과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구청장께서 ‘청결 강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깨끗한 강북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무단투기 근절 대책을 좀더 철저하게 세우고 예산과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동북일보 4면

5분 자유발언

## 무단투기단속, 예산과 인력 등 특단의 대책 세워야

이영심 의원

(새정치/송천동, 삼각산동, 삼양동)

이영심 의원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화단설치, 철저한 단속 등 예산과 인력 투자 방안에 대해 발언하였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5일 강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로 개최된 ‘국민과의 의견소통 간담회’에서 접수된 의견들 중 무단투기 전봇대에 화분설치를 확대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무단투기지역에 화분을 비치할 경우 지속적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화분 자체가 쓰레기가 되고, 그 위에 쓰레기가 모이는 무단투기를 더 조장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역구인 삼양동, 송천동 등 무단투기가 참으로 심각해 길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괴롭고,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되면 무단투기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영심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청결 강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깨끗한 강북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무단투기 근절 대책을 좀더 철저하게 세우고 예산과 정책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영심 의원.

고 말했다.

또, 의회에서 무단투기 근절대책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매달 몇 군데씩 상습투기지역을 돌아다니며 순찰하고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것을 제안하며 무단투기근절 방법론을 제기했다.

이영심 의원은 먼저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동별로 몇 개씩 선정해 치우고, 원이나 정사각형 모양의 작은 화단을 만들어 팬지나 작은 꽃을 심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분보다는 아주 작은 크기의 꽃밭이라도 만들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그 주변 경계에 그물망으로 경계를 만들어 놓는

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물망이 미관상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조성된 그 화단 경계 옆에 다시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을 위해 “동사무소, 청소행과, 푸른도시과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무단투기 적발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 법은 지키지 않고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만이 무단투기를 하므로, 파파라치에게 고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직, 일용직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면, 한 두 번 적발된 사람은 무단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투기 근절에서 청소행정과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사성 예산이나 그 외에 어떤 예산보다 우선으로 시급성이 있으며 또한 과태료가 세수가 되어 인건비는 나오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이며, 각동에 배정된 예산이 무단투기 개선사업비가 동별 연 30만 원 잡혀 있지만 그물망을 사서 걸고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순찰할 인력이나 예산이 한달에 3만 원도 안 되므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이영심 의원

## “무단투기 근절위해 예산과 정책 반영해달라”

이영심 의원, 상습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신고 포상금지급 등 대안밝혀



강북구의회 이영심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2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단투기 근절 대책을 좀더 철저히 세우고 예산과 정책을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구인 삼양동, 송천동 등 무단투기가 참으로 심각해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되면 무단투기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한 뒤 “의회에서도 무단투기 근절대책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매달 몇 군데씩 상습투기지역을 돌아다니며 순찰하고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먼저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동별로 몇 개씩 선정해 치우고, 원이나 정사각형 모양의 작은 화단을 만들어 팬지나 작은 꽃을 심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분보다는 작은 크기의 꽃밭이라도 만들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그 주변 경계

에 그물망으로 경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무단투기 적발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파라치에게 고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직, 일용직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면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기한 것이다.

무단투기 근절에서 청소행정과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급성이 있으며 또한 과태료가 세수가 되어 인건비는 나오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영심 의원은 “각동에 배정된 예산이 무단투기 개선사업비가 동별 연 30만원에 불과해 동사무소, 청소행과, 푸른도시과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께서 ‘청결 강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깨끗한 강북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무단투기 근절 대책을 좀더 철저히 세우고 예산과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